

6 ‘청년은 지금’ 특별기획 - ②청년정치



(사진=엔스플래쉬)

진짜 청년의 새로운 정당정치를 위하여



김 윤 철
한양대학교 교수

청년세대의 정치적 소외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청년 대표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럽 국가들은 의회 내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 국회의원 중 청년 비율은 30세 이하 0%, 40세 이하 2.3%, 45세 이하 5.6%로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0대 미만 의원 2명이 당선됨으로써 3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이 약 0.66%로 증가했지만, 전 세계 각국 의회 내 3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중이 2%인데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유럽을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의 해외 민주주의 국가

들에서는 30~40대 정치인들이 정부 수반으로 당선됐고, 정당정치에도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신생 정당의 창당 및 부상이 진행됐다.

‘이준석 현상’의 진실

최근 한국에서는 36세(1985년생)의 ‘청년(?)’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을 포괄해 선출직 공직을 수행한 바가 전혀 없다. 또 대표가 된 후에는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대안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 채, 당내 유력 인사와의 통화 녹취 논란 등 분란을 키우는 행보를 주로 보이며 리더십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당 안팎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지지기반이 없어 대권 도전에 나선 정치인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 20일 한국정치학회에서 발표한 정한울 박사(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의 연구(『여론으로 본 정치적 세대교체: 오해와 진실』)에 기초해 볼 때, 실제로 이준석은 청년당원들의 지지가 아니라 당 안팎의 강한 보수성향의 기성세대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이들 기성세대는 정권교체와 당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는 당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준석을 선택했다. 즉,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게 아니라 여야 선거게임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 때문에 이준석의 당 대표 당선은 청년 대표성 강화의 차원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청년할당제 효과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도 최근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청년 대표성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주목할 것은 그런 중에 청년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이론적·실천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청년 정치 대표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실천은 주로 의회 내 양적 비중이 현저히 낮은 특징에 주목하고 구성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제 도입과 선거제도에 우선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 비례대표 선거제도, 피선거권 연령은 상관이 있는 반면, 여성할당제와 달리 소폭 적용된 청년할당제는 대표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당이다

그런데 이때 포착해야 할 진짜 문제가 있다. 선거제도든 선거연령이든 청년 할당제든 그것의 실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이라는 것이다. 법제화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의회에서 법제화를 주도하는 것도 결국 기성세대인 정당의 유력 인사라는 점이다. 그래서 청

야 할 것은 이런저런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생성·변형·운용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 정당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이다. 제도가 청년 대표성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청년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정당정치의 문제이다.

새로운 정치를 이룬 청년 정당참여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는 청년세대의 참여, 특히 정당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에서 반전평화, 생태 환경, 양성평등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 ‘조용한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1%8혁명’ 이후의 정당정치가 그 대표적인 예다. 1%8혁명을 주도했던 청년들은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정

당정치에 도전했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기성 거대 정당들은 이들이 제기한 이슈 등을 포용하고 흡수했다. 1%8혁명 이후의 정치에서 눈에여볼 것은 청년 주도로 활성화된 사회운동 중,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치 조성에 기여하고 영향을 끼친 것은 독일의 녹색당과 같이 정당정치에 참여한 세력이라는 것이다. 현실의 정당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은 적군파처럼 급진과 격화 되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사멸했다. 정당을 조직한 세력들 중에서도 러시아 혁명 당시의 볼셰비키같이 소수 전위정당 노선을 택해 선거정치 등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반대하거나 그 중요성을 경시하며 반체제 정당을 천명했던 세력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당의 고유성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로서 정당의 ‘고유성’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좋은 싫든 정당을 통해 작동한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며 실천에 나선 자들도 모두 정당

에 참여하거나 새로이 만들기까지 하면서 정당정치를 펼친다. 왜 그럴까? 정당이 특출한 그 무엇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의 작동 그 자체·즉 정치의 보편적 성격 그 자체·가 정당이라는 조직형태를 필요로 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념 정책, 다수의 지지를 통해 작동한다.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념과 정책의 형성을 위해서도 다수의 힘과 의견을 모아야 한다.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처지와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바탕해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이념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그 누구도 홀로 감당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가능케 해주는 조직형태로 고안된 것이바로 정당이다.

반(反)정당정치 현실에 순응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는 ‘혐오산업’으로 불린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당은 권력욕에 불타는 음모가들의 집합

체인 것처럼 묘사된다. 정당정치에 대한 국내 언론 기사 대부분은 어떤 이념과 정책적 지향성을 놓고 논쟁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떤 파벌에 속하는지, 또 어떤 정치인과 파벌 간의 비방이 오가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정당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증폭시킨다. 현실의 정당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청년을 ‘정치충’이라고 부르며 비하할 정도다. ‘세계와 시민’ 같은 수업에서 각자 혹은 모둠별 관심 주제 영역을 정할 때 정치를 선택하는 경우는 늘 소수다. 아예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大) 학생인데도, 정치는 학생 신분으로 멀리 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현대 문명세계에서 발생했던 거대정치변동, 특히 민주화의 핵심 주역이 청년학도였다는 사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청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우주개발 등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시대에 미래 삶을 설계하고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은 이런 반정당정치적 현실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살릴 세계를 스스로 만들 기회를 차

단하고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의미

젊고 넘어갈 것이 있다. 청년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다. 청년은 생물학적 의미만을 지니는 용어가 아니다. 그저 ‘어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년은 ‘새로움’ ‘도전’ ‘미래’와 연결되어있는 용어다. ‘영원한 청년’ 혹은 그 반대로 ‘에 늙은이’ 등의 용어가 따로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성세대가 주도하는 청년세대 담론을 보면 청년은 어린(어리석은) 사람이고 보호대상이다.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실 제 뭘 해줄 것도 아닌데 그리 바라보고 호명한다. 그게 아니면 청년은 (예비) 피고용자이거나 (영원한) 소

사할 수 있을 뿐이다.

줄 서지 말고 만들어라

최근 한국의 정당들도 당내에 청년조직을 만들었다. 독자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청년00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당정치 흐름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변경하는 데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다수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할 힘 말이다. 다만 명심할 것이 있다. 그러한 관심과 참여가 현재처럼 제 뭘 해줄 것도 아닌데 그리 바라보고 호명한다. 그게 아니면 청년은 (예비) 피고용자이거나 (영원한) 소